



2026 VISION

흔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여배 드립니다.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여러분, 혹시 친구들이 “너는 못 해”, “너는 작잖아”, “너는 약하잖아”라고 말해서 마음이 작아진 적이 있나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속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윗이에요.

골리앗은 크고 강한 장수였어요. 칼과 창과 갑옷을 가지고 다윗에게 다가왔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어린 소년인 것을 보고 비웃었어요.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 하고 조롱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골리앗이 너무 커 보였고, 다윗은 너무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다윗의 눈은 달랐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이 던진 작은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공부가 어려울 수도 있고, 친구와 다툴 수도 있고, 두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문제만 바라보면 점점 겁이 나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겨요. 이번 한 주도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요!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